

연중 제 3 주일

기도서 P. 237 B해

제1독서(요 나 3, 1-5, 10)

제2독서(고린전 7, 29-31)

복음(마 르 1, 14-20)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장님이 된 바보」

범 영 배 신부

요즘은 결혼 시즌(season)이라서 새로운 설계를 꾸미고 출발하는 커플(couple)을 자주 봅니다. 현대 가끔 이해하기 힘들게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 하여 수군대는 것도 봅니다. 사랑 때문에 눈이 멀게 되고 바보가 된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견해로 생각하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사랑을 저울질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격(格)에 맞지 않는 커플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고생을 생각지 않고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 바친, 눈이 멀고 바보가 된 사람은 현실적 감각이 둔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받습니다.

첫번째 부르심을 받은 어부 네 사람 역시 현실적 감각이 둔한 눈이 먼 바보였는지 모릅니다. 나자렛 고을에서 자라난 촌머기 노총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선생들도 많은데, 촌머기 예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고 따른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수군거림 받기에 알맞았 습니다.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과 고기잡이 동료들과 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망설여 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번째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며 손짓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르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적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 오지도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현실적인 조그만 이익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신앙촌에 들어가 매일 고된 일을 하며 사는 어느 교파의 사람은 우리는 미친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스승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를...

인간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하신 스승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적 감각이 둔한 「장님이 된 바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앙 전주교회 보좌신부)



구정을 효도의 날로

효경(孝經)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살아계실 때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고 즐겁게 해드리며, 돌아가신 뒤에는 엄숙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자를 덕(德)에 어긋났다고 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을 공경하는 자를 예(禮)에 어긋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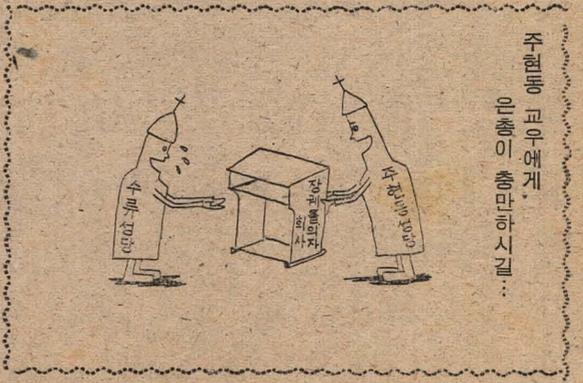
성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읍니다. (요한1서 4장20-21절)

충·효·예를 강조하는 한국적인 정신풍토에서 사는 우리는 다음 주일에 구정(舊正)을 맞는다. 조상 전래의 명절인 이날, 우리 형제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다짐하는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신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부모 살아계실 때에 정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조상께 극진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이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제 부모에게 다하고 보면 덕스러운 가르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천하가 본받게 될 것이니, 이것은 대개 천자로서의 효도(天子之孝)이다.

구정을 효도하는 축일로 삼자. 이제 이종과사라는 속 쓰러운 표현은 집어치우자. 그리고 효도를 강요하지는 말자. 위에서부터 天子之孝를 하자. 충성도 마찬가지다.

숲 정 이 산책





하느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라

—일치주간(1월 18~25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왔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에도 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7-11절)

□ 머 리 말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이 그리스도교 일치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교회 분열 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신약성서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무리이다. 베드로의 편지는 신약성서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일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하나됨 혹은 "koinonia"가 초대 교회의 생활과 선교의 기초인 것이다.

1979년 일치주간은 이를 새로이 발견하고 드러내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베드로의 편지는, 왜 상호 봉사과 사랑이 교회의 일치를 이룩하고 유지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두가지 이유를 제시해준다.

1. 베드로의 편지는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오늘날 터키에 속하는 인근지역에 산재해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상으로한 것이다. 이 교회들은 식민(殖民) 교회들로서 소수 공동체들이었으며, 적대적인 상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결속시키는 일치와 서로가 서로에게서 받은 상호간의 풍부함으로 지명해 나가고 있었다.

오늘날 세계 도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여러 면에서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소수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적대적인 사회의 압력, 박해와 시련과 고쳐-이것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언제나 겪어온 것이며 오늘날에는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2. 그 편지는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이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최종 형상이 드러났으며, 이 형상이 만물 안에서 이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희망을 향한 긴장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의 나라가 세속 권력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확신속에 갈망한다.

위의 두가지 고찰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교 일치위를 위한 일치주간에 베드로의 편지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명백해진다. 지구상에 산재해 있으며 긴장과 공포에 예속되어 있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평화의 유대를 건설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또한 서로간의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의 정신 안에서 그들의 관계와 구조를 새롭게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1. 기도어로 불리움

베드로는 기도안에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교회를 부른다. 만물의 종말과 성취를 깨닫는 지혜는 열렬한 기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형시킨다.

2. 사랑으로 불리움

그리스도의 내림(來臨)에 미리 참여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생활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힘을 다하여 견지해 나가도록, 또 그 사랑을 꾸준히 성장시키도록 불리웠다.

3. 나눔으로 불리움

사랑이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필연적인 특징이다.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똑같이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솔선해서 나누어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에서만이 모든 교회의 생활이 새신될 수 있다.

4. 봉사어로 불리움

말씀과 봉사(diaconia)는 교회생활의 중심적인 활동들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봉사의 표현들이 지닌 완전성과 그리스도다움에 큰 비중을 부여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 결 론

베드로는 편지 전체에서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믿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영(靈)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출발점이며 또한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에 보호를 받으면서 방황하는 민족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도록 불리움 우리는, 아무리 큰 난관이 있더라도, 교회의 일치위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민족이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도 지정 보일러 시공업체

한국 보일러 설비사

호-스배관, 철관배관, 기름보일러,

시공 및 수리전문

연락처 : 이리 8629 · 군산 3032



가난과 억눌림으로 소의당하는 자들을 위한 투신

—제4차 사회문제 주교세미나 선언문(요약)—

- 우리가 돌아본 4개국(태국·한국·인도네시아·필리핀) 저변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디해가는 빈곤, 빈부의 격차 심화, 혼란, 권위주의 정권, 폭력, 공포, 소외와 같은 동일한 양상들이 깔려있음을 목격하였다.
-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들을 분석한 결과, 「식민정책과 봉건제도에다 서구의 재래식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아시아 사회가 지녀온 전통적인 경제구조가 붕괴되고 기존 평형상태가 파괴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나라들의 경제정책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국내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외시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중들의 기본적인 욕구·식량·주택·교육·직장—보다는 소비사회 요구에 영합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 이같은 체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혜택을 입는 자들은 외국시장들과 투자자들 및 국내의 특수층들이며,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이들은 그에 따른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다.
- 오늘날 아시아의 제국가들은 인간존재와 인간가치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19세기 유럽에 버금가는 시대에 처해 있다. 필요한 것은 인간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다.
-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민중들이 점차 자기 문제의 원인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조직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다. 교회도 곳곳에서 그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고난과 육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한때는 현상을 시인하기에 급급했던 종교가 점차적으로 사회개혁에 필요한 용기와 비전의 발생지가 되어가고 있다.
- 정의의 촉진은 복음화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포함해서 정의의 교육을 목적으로 삼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그 노력이 복음의 뜻에 맞추어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인간다운 진보적 작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한다.
-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용기있는 민중들이 인류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그러나 독재체제는 일반적으로 민중들의 조직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파괴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중에게 협조하는 입장에 선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한다.
-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신은 이미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재래식 자본주의는 풍요속에서 빈곤을 유발시키고 있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 교회는 물질적인 궁핍으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양상으로는 뒷전으로 밀리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투신하도록 요구한다. (78. 2. 24—3. 8. 마닐라)

요심이 (286) 김병오

팔레비왕이여
이란북쪽에 있는
소련이 남침할것이라고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블러 이르렀오?

안했오

국민들이 외국파자를
많이 먹게해서 정치에
관심이없게했오?

안했오

그러니까 왕이
쫓겨났지!

신장 개업 안내

소라의 이름으로
고산 삼거리 舊 유의상실 자
리에 새로이 양장점 문을 열
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 라 의 상 실
이 춘 자(마리아)타툼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체 유치원

자 격 : 만 5세 이상
기 간 : 2월 1일—2월 20일
연 락 처 :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 화 : ① 8808, ② 3231

□ 직원 모집 공고 □

- 모집인원 및 자격
일반직 5급 0명
①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
② 고졸이상 자격과 병역을 필한 자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 (일반상식, 부기)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사진 부착), 졸업증명서 1통, 병적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접수
① 기간 : 79. 1. 17~1. 22
② 접수처 : 당 조합 총무계
- 전형일자
① 일시 : 79. 1. 24. 오전 10시
② 장소 : 고창신용협동조합 회의실(전화 926)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고창신용협동조합 인사위원회

직 원 모 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외모단정한 신자로서 상주 기거할 수 있는 여성
- 년령 : 만 16세이상 20세미만
- 학력 : 국졸 이상
- 모집인원 : 2명
- 접수마감 : 1979. 1. 31일 오후 5시까지
- 면접 : 1979. 2. 1. 10시
- 월 보수 : 초봉은 30,000원 이상 이며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주 가톨릭센터 관장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신부·수녀 연합회...22<월>~24<수>, 가톨릭 센터
 2. 교구 중·고등학생 연합회 총회...26<금>으로 연기합니다
① 시간...26<금> 오전 10시, ② 장소...가톨릭 센터
 3. 사제서품...30<화> 오전 11시, 중앙성당
전종복(용안), 박성팔(합월), 이상섭(전동), 박병준(장수), 김성진(서학동), 권이복(한들), 부제품...김희남(중앙) ※ 많은 참여와 뜨거운 기도 바랍니다
 4. 평협 산하 단체 임원 연수회...2월 3<토> 오후 2시~4일<일>
① 참가단체...교리교사 연합회, 농민회 전북지부, 대학생 연합회, 방저거 3회 전북지부, 빈첸시오 전북지부, 레지오 꼬미시움, 중·고등 연합회, J.O.C 연합회
② 참가자격...위 단체의 임원 3명씩(회장단 1명은 필히 참석할 것) ③ 회비...1인당 1천원
※ 교구 평협 상임위원은 2월 3일 오후 7시 반까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교리교사 성서·교리 연수회(본당·공소)...2월 4<일>~8<목>, 가톨릭 센터,
참가비(1인당)...전주 4,700원, 이리 4,500원, 군산 4,300원, 기타 3,700~4,200원(공문 참조)
 6. 심례본당 전화번호 변경...2018년으로
 7. 주현동 본당, 한들 본당내 오암리 공소에 제대 기증(4만원 상당)
- 지정한 신부님 소식...다리가 더 나빠져 복발을 짚게 되었습니다(9월에 귀국 예정).
※ 교구내 모든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들께 안부 전합니다...많은 기도 바랍니다
- 성경이 전화놀이 성금 감사합니다
스타사장-장남수 1만원, 주현동 젊은이-500원, 고창 이변우-5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오승현
보좌 신부 영배석
사도 회장 이복

1. 성모회: 21일<일> 공식미사 후
 2. 본당 울드레아: 21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장소: 사제관
 3. 사제서품 성가연습: 22일<월>부터
어머니, 청년성가대 오후 8시 장소: 장당
 4. 유아세례: 26일<금> 어머니미사 후
 5. 합동 위령미사: 28일<일> 구정 봉투를 사용하세요
 6. 미사때 의복을 단정히 하시다
 7. 전례담당
21: 복사-임주백, 신동진 해설: 양학도
28일: 복사-이강호, 연관섭 해설: 장남수
- 지난주 봉헌금: 191,157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구

1.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임원선거
 2. 구정 합동미사: 28일 10시 전영 위한 봉헌 바랍
 3. 첫미사: 새신부(김성진)님의 첫미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31일 11시)
 4. 성령세미나: 2월 7일, 14일, 21일, 28일, 3월 7일, 14일, 21일
 5. 축! 결혼: 신랑-김문수(안드레아), 신부-한정희
신랑-이장근(아우구스티노), 신부-조문순
- 지난주 봉헌금: 52,370원

(술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빠짐없는 참석바람)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예물 형제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3. 누갈다 부녀회 안내: 성당 신축기금 마련하기 위해 소비조합에서(찰기름·계란·기타) 많이 애용하세요
 4. 사제양성 후원사업: 예년과 같이 저금통 배부
구역장·반장님 사무실에서 저금통 가져가세요
 5. 성당 신축기금 신입안내 <다음주 발표>
- 지난주 봉헌금: 149,220원

(노송동)

전화 ④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오용희
사도 회장 김성익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중식제공)
대상: 사도회장단·각 분과위원·각 단체의장·각공소회장·각 구역장·반장님 꼭 참석해주세요
 2.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임시 구리아조직: 선출된 간부명단
단장-이요셉, 부단장-오모니카, 서기-은리자아,
회계-허도마 수고하시겠습니다
 4.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각 단체 회장님은 79년도 활동계획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
 6. 특별헌금: 예비자 진양자(1만원)
- 지난주 봉헌금: 93,22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종

1.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연총친목회: 28일(구정) 저녁 7시 30분
 2. 구정 합동미사 가정 봉헌
 3. 주일학교 교사모집: 교교 졸업자 및 대학생 재학중
영세후 3년이상 열심선자
 4. 예비자 교리: 수일 10시미사후, 수요일 7시30분
※ 새해 교우가정에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시길.....
- 지난주 봉헌금: 172,885원 교무금: 225,0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감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진복회 월례회: 1월 21일 미사후(회의실)
전례부장 이민 송별회 겸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28일 저녁 7시 30분
 3. 학생 동계 특별교리및 단합대회: 25일~27일, 300원
 4.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알뜰히 가꾸시다
 5. 봉헌금 신입현황: 지난주 누계-4,702,000원
금주신입 1,338,400원
예산액: 8,283,912원, 합계: 6,040,400원
- 지난주 봉헌금: 33,370원, 교무금: 107,03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구정 조상을 위한 미사: 1월 27일·28일 오후 7시
이날 발친 예물은 순교성지 개발을 위해 쓰여집니다
 2. 성령세미나: 1월 30일부터 매주<화> 7주간
장소: 파티마 성당, 시간: 오후 7시, 회비: 3,000원
 3. 예비자 교리
직장인-〈복〉 7시미사 후·일요일-저녁미사 후
일반인-〈복〉 오전 10시·일요일-공식미사 후
*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 미사시간 변경: 수일 어린이미사 및 교리-주일 오후 1시, 중·고생미사 및 교리-토요일 오후 4시
 5. 가정방문: 지난 15일부터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6. 구라주일 헌금: 다음주 헌금은 전액 나병환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7. 서품식: 30일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6분의 새신부님·1분의 부제님 탄생, 많은 참여바람
- 지난주 봉헌금: 50,048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임원연수회: 1월 17일-19일
조성호·장동수·유덕열 임원이 맡으셨고
2월 1-3일 유기순·박장기·송영자 받으시겠습니다
 2. 구정 합동 위령미사: 28일(주일) 10시미사
먼저가신 전영을 위해 정성들여 봉헌합니다
 3. 꼬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전동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에 간부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217,895원